

휴일도 잊은채 월동채소밭서 구슬땀

■르포/ 태풍·호우 피해 복구 영농현장을 가다

채소밭 절반이상 생육 지장... 집충출하도 걱정 가족과 함께 모종이식·물주기·시비·방제 나서

기상악화로 최근 큰 피해를 본 농가들이 휴일인 9일에도 들녘에 나와 구슬땀을 흘리며 월동채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피해농가들은 약기상으로 파종시기가 평년보다 늦춰진 데다 향후 출하물량도 일시적으로 몰려 상품을 내놓더라도 제값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제주시 서부지역 도심을 벗어나면 서 겨울채소를 심은 밭들이 하나둘 보였다. 하지만 침수와 태풍 피해로 브로콜리와 양배추 등이 등성등성 자라며 눈으로 봐도 절반 가량은 피해를 본 듯했다. 포기마다 잎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바람에 마른 모종도 많다. 심지어는 작물을 심지 못하고 빈밭으로 둔 곳도 여러 곳 목격됐다. 그야말로 평년에 봤던 100% 정식은 단 한 곳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림읍 귀덕리에서 만난 홍영옥(52)씨는 “콩을 수확해야는데 8-9월 굿은 비날씨에 태풍까지 몰아치며 폐작돼 모두 갈아엎었다”며 “심지어는 콩깍지에서 콩이 싹을 틔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파를 심기 위한 비닐 멀칭작업에는 휴일을 맞은 자녀가 동행해 일손을 도왔다.

조금 떨어진 브로콜리 밭에선 드론으로 방제작업이 한창이다. 업체

관계자는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들이 들어있는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요즘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밭들을 돌아다녀보면 어느 곳 하나 농사가 잘 된 곳이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좋은 상품을 내놓기 위해 농가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마지막 방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을 대신했다.

“폭우나 태풍이 아니더라도 매년 비가 올 때마다 피해를 본다”는 임정옥(54·귀덕리)씨의 속은 그야말로 솟처럼 새카맣다.

“양배추, 적채, 마늘을 심었는데 피해가 50% 이상일 겁니다. 밭 하나는 아예 갈아엎고 새로 콜라비를 심어봤는데 올해 농사는 모두 망쳤다고 봐야죠. 문제는 이 뿐이 아닙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도로의 물까지 밭으로 들어오면서 피해가 더 커졌죠. 매년 한림읍에 배수공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몇년째 묵묵부답입니다. 피해가 이어지는데도 행정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림리까지 이어지는 밭에는 쪽파와 취나물이 그나마 잘 자라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작물인 양배추, 방울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적채 등은 생육 지장으로 크기가 제각각이다.

그래도 농부들은 휴일인 데도 가족과 함께 밭에 나와 정성을 다해 모종 하나라도 더 살펴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비료를 뿌리고, 방제를 하는데 여념이 없다.

최근 제17호 태풍 ‘타파’에 의한 농작물 유실 및 침수 피해는 6211ha에 이른다. 이어진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한 피해는 접수 중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거주하는 임정옥씨가 빗물에 의한 침수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로변 배수로를 가리키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내·외 수자원 전문가 한자리에...

10~11일 제주물 세계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물포럼으로 도약하고 있는 ‘제주물 세계포럼’이 10일 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된다.

제주물 세계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물 문제 극복을 위한 학술적, 기술적,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1건의 기조강연과 7건의 주제발표 및 2건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첫날 주회사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의 ‘제주삼다수 취수원 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션1의 주제인 ‘수자원 가치 창출과 사회공헌’에 대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정석 박사, 하와이주 수자원관리위원회 제레미 키무라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문주박사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예정돼 있다.

네스코 필립 페이지파트 전문관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열린다.

11일은 ‘글로벌 수자원 보전·관리 동향’에 대해 글로벌 식음료 기업 다는 그룹의 패트릭 라사사뉴 박사, 미국지질조사소 스티븐 진저리치 박사, 하와이주 수자원관리위원회 제레미 키무라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문주박사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예정돼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양식광어 전문가들 제주서 ‘광어학 심포지엄’

내일 제주오리엔탈호텔

제주광어 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품종 개량 연구 등을 위해 전국의 양식광어 전문가들이 제주로 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전국 150여 명의 양식 광어 전문가들이 모이는 ‘제5회 광어학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회장 이운수)와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웅선) 공동 주최로 ‘양식광어-유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수산물 소비시장의 동향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비자를 매료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

의 해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식 어류의 소비 확대 방안(하마다 에이치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명예교수) ▷수산물 시장의 국제적 동향과 품질 전략(유병덕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제주광어 양식의 생산성 향상 방안(이운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장) ▷광어 품종개량 연구(오성립 제주해양수산연구원 광어연구센터 박사) ▷광어용 곤충 배합사료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이봉주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박사) 등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이와함께 도내 대학생 등의 우수 논문 시상식과 10점의 포스터도 발표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수산물브랜드 일원화한다

JTP, 온라인마켓 구축 용역 “대표브랜드 육성·판로 확대”

제주 수산물 브랜드를 일원화하고 통합 온라인 마켓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제주테크노파크(JTP)는 오는 14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 수산제품 온라인 마켓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예산은 8882만원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통합 홈페이지 마켓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산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대표 브랜드 육성, 수산제품 판로 개척 확대 등이 목적이다.

브랜드 정체성 수립을 통해 제주 수산 제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일원화된 마케팅으로 실질적인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우선 JTP는 B2B(기업간의 상거래) 관리 기능과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거래) 기능, 소비자 대상 쇼핑물 통합관리 기능 등을 구현해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정보설계(Information Architecture·IA) 구축과 더불어 우수성과 제주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UE) 구축 등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수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제주어장(www.jejuseafood-market.co.kr)’ 브랜드를 활용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적인 스토리를 제작해 브랜드 정체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2019 세계제주인대회

GLOBAL JEJUIN HUB NETWORK

2019. 10. 12 (토) - 10. 14 (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도 일원

더 커지는 제주, 글로벌 제주인 해나되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GLOBAL JEJUIN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10월 12일(토)

등록	시간	주요내용	장소
환경행사	14:00-17:00	·참가자 등록	메종글래드 제주
	17:30-18:30	·거리 퍼레이드	제주시청-탐동광장
	19:00-20:30	·환경 만찬	민족자연사박물관

※ 12일 행사는 초청자(제외도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13일(일)

전체 세션	시간	주요내용	장소(ICC JEJU)
선택 프로그램	10:00-13:00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탐라홀
	14:00-17:00	·제주인 성공스토리 토크쇼 ·차세대 네트워크 교류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	삼다홀 303호 한라홀
제주인 화합의 밤	17:00-19:00	·제주도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공연 ·피아니스트 양방언 공연 및 협연	탐라홀A
	19:00-20:00	·환송만찬 등	탐라홀B

10월 14일(월)

고향방문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장소
제주마을 체험투어	09:00-14:00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 방문	제주도 일원
	09:00-14:00	·제주 마을 투어 및 체험	

※ 14일 행사는 초청자(제외도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12일(토)~14일(월)

상설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장소(ICC JEJU)
상설 프로그램	09:00-17:00	·제주인 이주사(移住史) 전시회	3층 메인로비
		·제주 전통문화 체험존 운영	
		·제주 제품 전시 · 판매전	
		·대표기관 홍보부스 운영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ttp://globaljejuin.com>)를 참고 바랍니다.
·행사문의 2019 세계제주인대회 운영사무국
T. 070-4488-2125 F. 0303-3130-0420 E. globaljejuin@gmail.com